

‘예술마피아’에 던지는 한 풍자가의 냉소

에프라이م 키손 지음 《피카소의 달콤한 복수》를 읽고

김문환

서울대 교수·미학

가장 현대적이라고 자부하는 예술작품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비평을 읽고 나서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길이 없어 더욱 무력해지거나 행여 남들이 무식하다고 할까 두려워 그와 같은 작품이나 평론에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은 말하자면 그와 같은 사람들의 편에서 있는 셈이다.

부조리한 현대미술에 치르는 비싼 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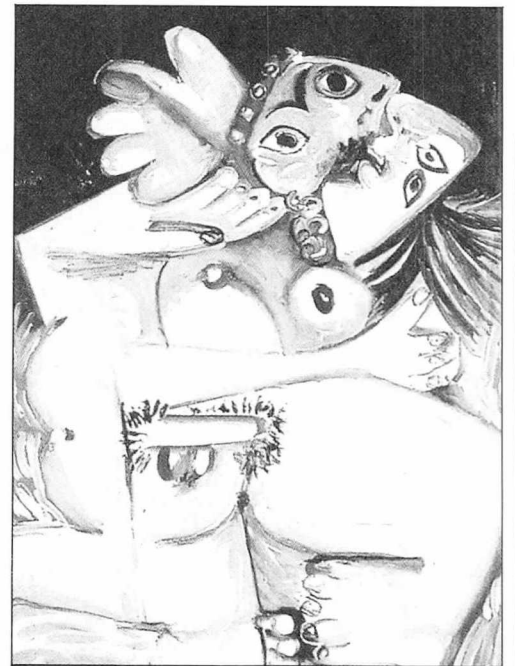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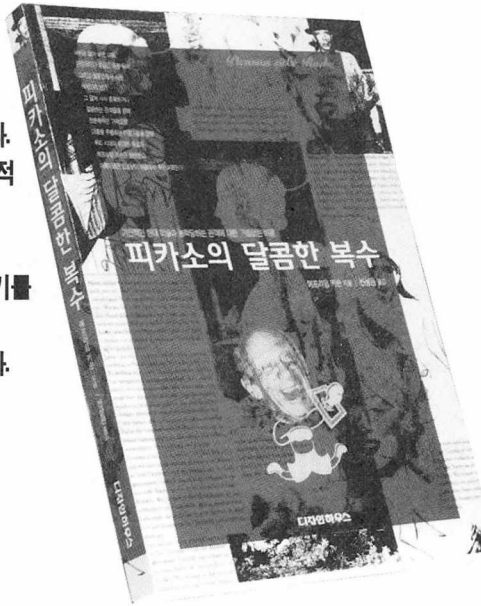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는 현대미술 전체를 모조리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현대 미술에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 그는 피카소의 유언이라고 알려진 글을 인용하면서 현대미술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세련된 사람들, 부자들, 무위도식자들, 인기를 좇는 사람들은 예술 속에서 기발함과 독창성, 과장과 충격을 추구했다. 나는 내게 떠오른 수많은 익살과 기지로 비평가들을 만족시켰다... 나는 오늘날 명성뿐만 아니라 부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면 나는 스스로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가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단지 나의 시대를 이해하고, 동시대의 사람들이 지닌 허영과 어리석음, 욕망으로부터 모든 것을 끄집어낸 한낱 어릿광대일 뿐이다.”

피카소가 자기의 그 뛰어난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이 풍자가의 근본취지는 “부조리의 논리와 추의 미학, 그리고 비도덕적인 윤리를 절대적으로 따라야만 한다고 믿는 예술애호가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렇게도 높은 가격이 지불된다는 것은 희비극이 아닐 수 없다”는 한 독자의 반응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냉소적인 자세는 예술의 부정적인 발전에 매스컴도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는 비난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유럽의 평화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던 19세기 말경부터, 쓰고 써도 시간이 남던 파리와 세계 곳곳의 보헤미안 예술가들이 아무 걱정없는 부르주아지들의 지루한 안정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이와 같은 예술 풍토를 조장하는 세력들, 특히 비평가와 매스컴, 그리고 이들에 의해 놀아나는 관료조직을 저자는 ‘예술마피아’라고 비난하기를

당혹감마저 느껴지는 현대 예술작품에 내뿜는 저자의 냉소는 직설적이다. 이 풍자는 예술의 부정적 발전에 기여한 비평가와 매스컴 관료조직을 ‘예술마피아’라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이같은 자세는 톨스토이를 닮았다.



파블로 피카소의 '포옹'

서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세는 지독히도 톨스토이를 닮았다. 톨스토이는 쾌락주의적인 현대예술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예술은 첫째로 그 본질이 한없이 변화무쌍한 형태를 취하는, 심오한 종교적 내용을 잃게 되었고, 둘째로 극히 적은 범위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허식적이고 애매한 것이 되었고, 셋째로 자연스럽게 진지한 것을 잃고 모두 머리만을 쓴 기교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예술은 오만과 성욕과 인생에 대한 권태라는 극히 보잘것없는 세 가지 감정을 맴돌게 된다.

톨스토이를 닮은 비판사각

톨스토이가 데카당 예술이라고 일컫은 현대예술은 이처럼 배타적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극소수 사람들만 이해하고, 또 이들과도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헤어나오고자 차용·모방·현혹(효과본위)·흥미의 방법에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는 그 나름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그것을 첫째 예술가가 작품에서 받는 상당한 보수 및 그 때문에 생긴 예술가의 직업화, 둘째 예술비평, 셋째 예술학교로 요약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부유한 지배계층의 자금과 그들의 주체못할 여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체제 변혁에 대한 요구가 그의 예술이해에는 잠복하고 있다고 보아

틀림없다.

톨스토이의 현대예술 비판은 전통적인 미학의 비판에서 시작한다. 예술의 목적은 미다. 미는 그것이 주는 쾌락에 의해 인식된다. 예술적 쾌락은 그것이 쾌락이기 때문에 좋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예술의 정의를 톨스토이는 전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예술의 개념이 미의 개념 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톨스토이는 예술을 쾌락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술은 인간 상호간의 교류수단 중 하나이다. 자기 감정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여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예술활동의 토대가 된다고 단언한다.

진정한 예술이 결핍된 가장 통탄할 만한 결과는 예술이 가장 나쁘고 유해한 감정을 일반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는 그의 비난은 필연적이다. 인류의 끊임없는 예술활동이 사람들을 교화시키거나 애국적 도취에 끌어넣거나 이 간난(艱難) 속에 끌어넣지 않았다면 대중은 벌써 진정한 문화적 수준에 도달했으리라 확신한다. 그러기에 애국적인 미신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와 소설, 음악과 노래, 개선행렬, 환영회와 전경화 기념상 등으로 제작되는 것을 참기 어려웠다.

이론적 토대 없는 비아냥만

톨스토이에 비해 이 저자가 현대예술을 비판하는 근거는 그리 뚜렷하지가 않다. 곧

이 골라내본다면, 첫째 오늘날 예술에서 이름 다움이 죽어버렸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저자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고능력을 냉소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사랑 받을 만한 현대화가들의 예술감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기준은 결국 톨스토이식의 사랑에 대한 이해로 연결된다. 즉, 자신의 작품이나 예술을 감상하는 관계에 대한 사랑 없이 진정한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표현이론에 입각하여 쾌락추구적인 예술작품을 비판했던 것에 반해, 이 현대판 톨스토이는 그럴 만한 이론적 구축에는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제발 저 높으신 비평가 양반들만은 그 하찮은 물건들을 가지고 내 신경을 건드리지 말기 바란다. 특히 건강적 이유에서”하는 비아냥이 고작이다.

비판이론을 비롯해서 현대예술에 대한 논리정연하면서도 상당히 타당한 견해에 정통한 역자가 어떤 동기에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책을 읽고 난 소감은 별로 흡족하지 않다. 그러나 때론 심심과 적도 그리 나쁠 것은 없다. 더구나 사진자료가 풍부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은 분명히 장점에 속한다. 사족이지만,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인용한 구약성서 구절은 “달아봐도, 달아봐도, 모자란다. 그나마 둘로 나누어 아주 망하게 하리라”는 뜻으로 새겨야 뜻이 통한다. ♦

반성완 옮김/디자인하우스/A5신/198면/8500원